

DMZ, 세계적 평화 관광지 된다



▲ 지난 6월23일 강원 철원군 월정리역 특설무대에서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에서 듀오 방백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고 쉽터 설치, 관광안내소 운영 등으로 서비스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인천 옹진,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유관지자체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고양 킨텍스,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 인근 지역의 대형 국제회의 시설에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나 이벤트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이하 정부)가 남북 교류 분위기를 살리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 평화관광 지대를 조성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DMZ를 평화관광 거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항목은 ●생태평화벨트 조성 ●콘텐츠 및 서비스 확충 ●추진체계 정비 ●평화관광 브랜드화 등 4가지다.

정부는 2013년 시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일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해 DMZ를 세계적인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기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 건립 예정인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와 강원도 양구의 DMZ 조이나미 체험장, 파주 캠프그리브스 관광자원 개발 등이 포함된다.

DMZ를 활용한 평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와 행정안전부 주도로 걷기여행길·자전거길 조성, 문화관광축제, 국제자전거대회 등을 추진하

관광업계 관계자는 "DMZ는 자연환경과 역사유물 등의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냉전 시대 상징으로서 희소성도 있다.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심을 높인다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인근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DMZ 평화관광지 조성 외에도 고부가 산업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계획하고, 중앙정부는 단계별 지원·컨설팅을 실시하는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객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지침을 제공해 관광객과 주민의 갈등 최소화에 힘쓸 방침이다.

금기형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DMZ와 해양자원 등 우리 국토의 특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 배우기 위해 한국 찾은 외국인 역대 최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작년 한국 유학에 나선 외국인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학위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2일 '연합뉴스'가 한국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7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국제이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의 한국 입국이 45만3천 명으로 5만 명 증가했고, 출국도 34만9천 명으로 2만4천 명 증가했다. 외국인 국제순이동(입국-출국)은 10만4천 명 순유입으로 1년 전보다 2만7천 명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외국인 국제이동은 남성이 43만8천 명, 여성이 36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3천 명, 3만1천 명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은 20대가 15만4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50대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외국인 출국도 20대가 10만1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및 일반연수 입국자는 5만8천 명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어 연수를 위한 일반연수(3만 명)가 학위를 위한 유학(2만8천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류 열풍이 미친 영향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취업은 12만1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천 명 감소했다. 특히 비전문인력 취업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교육부에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 영향이 있었다."면서 "특히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일반연수생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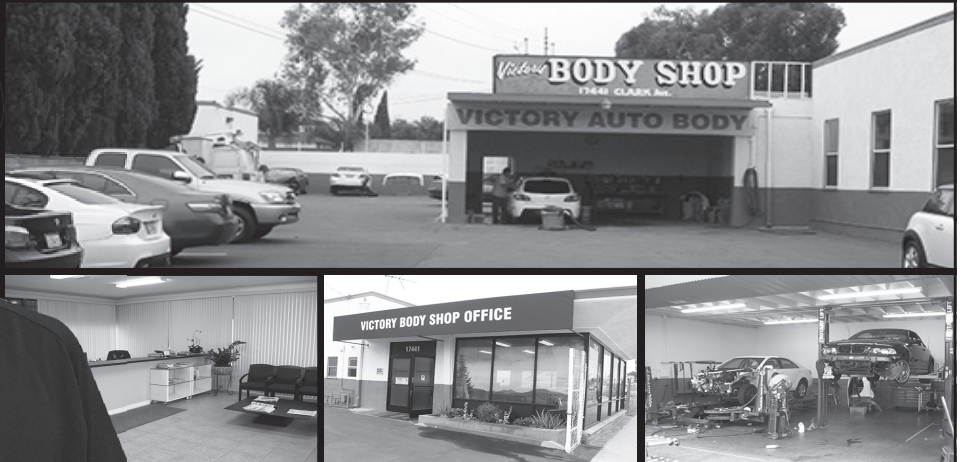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